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김상기*

- I. 머리말
- II. 경북의병 ‘토벌대’ 편성과 의병 탄압
- III. 일본군 수비대의 재배치와 이강년 체포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말 의병은 임진왜란기 의병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항전했다. 임진의 병은 정부의 지원과 명나라의 원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데 비하여 한말의병은 오히려 정부와 관군의 탄압을 받았다. 청일전쟁 직후여서 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철저한 무력 탄압을 받았다.

의병 자료로는 의병 측의 기록과 의병을 탄압한 일본 자료 등이 있다. 의병 측의 자료로는 의병장의 문집 기록과 진중일지류가 남아 있다. 김하락의

*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정토일록』을 비롯하여 『종의록』,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전해산진중일지』, 『홍양기사』, 『벽산선생창의전말』, 『관동창의록』, 『소의신편』, 『적원일기』, 『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 등이 공개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병장과 의진의 항전의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 측의 자료로는 통감부의 경무국에서 편찬한 『폭도사편집자료』와 『폭도에 관한 편책』이 있으며,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편집한 『조선폭도토벌지』가 있다. 『폭도사편집자료』와 『조선폭도토벌지』는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하여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에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의 외교사료관과 방위연구소 도서관 등에 있는 각종 보고서에도 의병 관련 자료가 들어 있다. 이들 중에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병 관련 자료는 2001년 독립기념관에서 일부를 번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¹⁾ 일본측 자료 중에 『폭도에 관한 편책』은 총 121책의 방대한 양으로 의병에 관한 보고서를 월별로 경무국에서 편찬한 일제 측의 의병 탄압 일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을 각기 소장하고 있으나 원문이 난해한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번에 토지주택박물관에서 간행한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이하 『진중일지』)는 후기의병기인 1907년 이후 충청지역과 영, 호남지역에서 의병 탄압에 참여한 일본군 보병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이다. 총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 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 이 진중일지에는 각종의 명령, 부대 위치, 전투 상황, 전투 중에 생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25매에 달하는 전투상황도는 칼라 판으로 되어 있어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자세하다.²⁾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1972.

김상기 편역,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 1,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 3-7.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65

이 글에서는 진중일지에 나타난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검토하고자 한다.³⁾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창의사실기』가 있으며, 이들 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는 이미 치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⁴⁾ 이 글에서는 『진중일지』를 중심으로 이강년의진의 일본군 수비대와의 구체적인 전투 과정을 검토함은 물론 일본군의 의병 탄압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Ⅱ. 경북의병 ‘토벌대’ 편성과 의병 탄압

1907년 8월 하순부터 의병의 활동이 격화되었는데 특히 경북의 산간지역에서 활발하였다. 9월 3일에는 의병 100여명이 문경을 습격하였는데 이때 일본인 가옥이 소각되고 일본인 5명이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⁵⁾ 9월 6일 일본군의 전보 보고에 의하면, 의병들이 함창에서 문경까지의 전선을 파손하고 문경우편국의 기계를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의병이 화령성 부근에 170명, 문경 부근에 약 570명의 의병이 집결하고 있음도 탐지되었다.⁶⁾

일본군 여단장 겸 남부수비대장 依田 소장은 9월 5일 제14연대와 제47연

2)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는 총 14권(총 2, 149쪽)으로 되어 있다. 「陣中日誌의 例式」(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제1호)에 의하면 일본군은 대본영의 각 부대, 각 병참감부를 비롯하여 대대이상 부대 및 독립중대에게 『진중일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작성 시기는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작성하였다. 진중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이를 전사 자료로 이용하고 병사들의 전형에도 참고함은 물론 심지어는 무기 탄약 피복 위생 교육 등 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장래 개량의 자료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진중일지』 원본은 각 부대에서 보관하고 부분을 육군성에 보내며, 육군성에서는 이 중 필요한 사항을 초록하여 보관하고 기타는 참모본부에 보내 육군문고에 보관시킨다.

3) 이강년에 관한 연구로는 정제우의 『운강 이강년의병장』(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이 있다.

4) 구원희, 「이강년 관련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선인, 2005.

5) 『진중일지』, 권2, 77쪽. 1907년 9월 7일자.

6) 『진중일지』, 권2, 80쪽. 1907년 9월 7일자.

대로 경북지역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토벌대’(대장 : 菊池 대좌)를 편성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⁷⁾

명령 (9월 5일 오후 10시, 용산사령부)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가 점차 창궐을 더하는 것 같다.
족지지대는 청안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서로 선이 닿아 있는 제13사단에서 기병 반개 소대, 산포1개소대(2문) 및 공병장교 이하 16명, 서부수비대에서 보병 제47연대 제1대대본부 및 2중대를 남부수비대에 증원할 것.
2. 남부수비대는 경상북도의 대토벌을 행하도록 할 것.
3. 토벌대는 부표의 제1호의 편집에 의거, 동 제2호의 예정행동 약도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과감히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4. 대구에서 함창을 거쳐 충주에 이르는 전신선로상 필요한 곳에 전신통신소를 개설할 것. 단, 본항의 목적으로 우토벌대에 통신기수를 부속시킬 것.
5. 토벌대는 양 곳 20일분 및 각인 탄약 250발(그중 100발은 예비탄약)을 휴대할 것.
단, 좌토벌대의 예비탄약 및 양곡의 일부는 태전수비대에 존치시킬 것. 본항의 수하물을 위해 특별히 호위병을 붙일 것.
6. 양곡은 우토벌대의 분은 대구창고에서, 좌토벌대의 분은 용산창고에서 수령할 것.
보충 탄약은 직접 용산병기창에서 수령할 것. 양곡 및 탄약의 운반 재료는 각 부대에서 적당히 징집할 것. 단, 우토벌대의 탄약은 특별히 당지에서 대구로 보낼 것.

남부수비대사령관 의전소장

7) 『진중일지』, 권2, 70쪽. 1907년 9월 7일자.

‘표 제1호’

「우토벌대」

제1중대 (중대장 : 藤田 대위) : 14연대 제10중대(1소대 결)

제2중대 (중대장 : 井澤 소좌) : 14연대 제3대대(9중대, 10, 12중대
(1소대 결))

제3중대 (중대장 : 菊池 대좌) : 14연대본부, 2대대본부, 5중대, 7중대,
기병2, 산포2문, 공병하사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토벌대」

제4중대 (중대장 : 水町 대위) : 47연대 9중대(1소대 결), 기병2

제5중대 (중대장 : 生田目 중좌) : 47연대본부, 1대대본부, 3·4중대
(1소대 결), 기병2

제6중대 (중대장 : 中茅田 중위) : 47연대 4중대의 1소대

이 부대는 모두 6중대로 편성되었는데 제1, 2, 3중대는 제14연대병력으로 하여 ‘우토벌대’라 하고 14연대장 菊池대좌가 지휘하고, 제4, 5, 6중대는 ‘좌토벌대’라 하여 제47연대 병력으로 편성하였다. ‘토벌대’의 총 지휘는 菊池대좌가 맡았다. 菊池主殿은 1895년 일본군이 대만을 점령할 때도 참전했던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였다.

우토벌대 대장 菊池대좌는 9월 7일 오후 4시에 예하부대에게 대구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⁸⁾

우토벌대 명령(9월 7일 오후4시, 대구에서)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가 점차 창궐을 더해가는 것 같다.

죽지지대는 청안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서로 선이 닿아 있는 제13사단에서 기병 반개 소대, 산포1개소대(2문) 및 공병장교 이하 16명, 서부수비대에서 보병 제47연대 제1대대본부 및 2중대를 남부수비대에 증원할 것. 남부수비대는 경상북도의 대토벌을

8) 『진중일지』, 권2, 72쪽. 1907년 9월 7일자, 「討伐隊編組」.

행하도록 할 것.

생전목중좌는 별도로 따라 좌토별대로 하고 우제3중대의 좌편에서 행동한다.

2. 우토별대는 8일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별도 및 토별대 조직에 따라 3중대로 하여 복진하여 토별을 행한다. 단 제2, 3중대에 기관총 각 2문을 붙인다. 각 중대의 연락은 가능한 한 매일 1회는 반드시 상황을 통보한다.
3. 함창부근에 있는 西原소대는 9월 11일 낙동으로 와서 내 예하에 들어올 것.
4. 제2중대장은 안동 부근에서 西岡중대를 함께 지휘할 것.
5. 토별대는 양곡 20일분 및 각인 탄약 250발을 휴대할 것. 단 본항의 수하물을 위해 특별히 호위병을 붙일 것.
6. 나는 제3중대와 함께 행진한다.

우토별대장 대좌 菊池主殿

위 ‘토별대’의 병력은 2개의 연대본부, 3개의 대대본부, 21개 소대와 기병 21명, 포병 1개소대(2문), 그리고 전신기수와 전신수 약간 명으로 편성되었다. 1개 소대의 병력은 약 30여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약 700여명의 병력으로 추산된다.

토별대장으로 명령을 받은 제14연대장 菊池 대좌는 직접 제3중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지휘하였다. 제3중대는 태봉에 도착하여 문경방향으로 들어가 연대장은 문경에 주둔하면서 진두 지휘하였다. 우선 정찰병을 파견한 결과, 의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경 일대에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이 1,500여명에 달하고 大乘寺와 金龍寺, 赤城寺가 근거지임을 밝혀냈다.⁹⁾

菊池대좌는 9월 7일 대구에서 부대원에게 ‘勵示’를 발표하여 제12사단이 북부 구주의 대표자인 것을 크게 마음에 새겨 명예를 높일 것을 훈시하였다. 菊池대좌는 9월 8일에는 제3중대에 다음의 명령을 내렸다.¹⁰⁾

9) 『진중일지』, 권2, 76~78쪽. 1907년 9월 7일자.

10) 『진중일지』, 권2, 81~82쪽. 1907년 9월 7일자.

제3중대 명령(9월 8일 오전 9시, 대구에서)

1. 제3중대는 명일 오전 9시 당지를 출발하여 多富를 향해 전진한다.
2. 不破소좌는 제7중대의 제1소대 및 공병을 거느리고 前衛를 맡을 것.
3. 본대는 기병, 보병의 잔여병력, 포병, 수송대, 후위의 순서로 하여 전위로부터 400미터의 거리로 하여 전진한다.
4. 후위는 제7중대로부터 하사1, 줄10명으로 편성하여 수송대의 뒤를 따른다.

의병은 9월 9일에는 새벽 3시경 성주분파소를 습격하여 순사부장에게 충상을 입혔다. 이 전투에서 일본인 3명이 행방불명되었다.¹¹⁾ 9월 10일에도 이강년의병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갈평에서 있었다. 9월 13일자 ‘보고제3호’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이 예천분파소를 습격함에 9월 7일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이하 보조원 10명을 거느리고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여 9월 10일 오후 1시에 葛坪 부근에서 약 300여명의 의병과 충돌, 교전하였는데, 지형이 불리하고 게다가 의병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포위되어 악전 후에 겨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¹²⁾ 『진중일지』를 통하여 이강년의병이 9월 10일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9월 1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승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순사들을 휴식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군사들이 불의에 습격하여 들어가니 적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죽어 넘어진 시체가 산과 들에 가득 찼다. 달아나는 적을 마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잡았다. (중략) 총검과 탄환 투구 양식 기구들을 수색하여 얻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¹³⁾

11) 『진중일지』, 권2, 84쪽. 1907년 9월 8일자.

12) 『진중일지』 권2, 115쪽. 1907년 9월 19일자

13)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임술일조(양력, 9월 10일)(『독립운동사자료집』 1, 232쪽).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다음 날인 9월 11일에도 갈평전투가 있었는데 순검 1명을 갈평 시장에서 체포하여 총살하고,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槐城에서 일본군 '장수' 戈田三太郎을 베었다고 한다.¹⁴⁾

菊池가 이끄는 우토별대는 9월 9일 대구를 출발하여 다부, 해평, 대창을 지나 9월 11일 낙동, 12일에 태봉에 도착하였다. 이날 宮副소위가 지휘하는 척후대 24명이 안동과 예천 방향으로 파견되었는데, 문경에서 동북으로 40리에 있는 대승사 부근에서 의병 5, 6백명을 만나 총격전을 벌였으나 의병의 공세가 강하여 간신히 귀대했다.¹⁵⁾ 문경 일대에 1,500여명의 의병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菊池대좌는 부대를 끌고 문경으로 들어갔다. 여단장은 좌토별대장 生田目 중좌에게 전보를 보내 제4종대를 菊池 대좌에 예속시킬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좌토별대도 제2종대와 연락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군 전 부대가 문경에 집결하게 되었다. 菊池는 9월 13일 다음의 명령을 내려 의병을 진압하게 하였다.¹⁶⁾

제3종대 명령(9월 13일 오전 3시 40분, 태봉에서)

1. 적의 주력은 문경의 북방 主屹山에서 池谷과 光院에 걸쳐 前哨를 배치한 것 같다.
제4종대 水町중대는 오늘부터 내 예하에 배속하고, 生田目中좌는 이 방면에 멈추고, 제2종대와 연락할 것.
2. 당 중대는 오늘 문경 방면에 전진하여 폭도를 소탕할 것.
3. 不破소좌는 野中소대 및 공병대를 거느리고 전위가 되어 13일 오전 6시 30분 당지 북단을 출발하여 진남관을 지나 문경을 향해 전진할 것. 전령 1명을 붙인다.

14) 『진중일지』 1907년 9월 19일자(권2, 115쪽)에 의하면, 갈평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 측은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이하 보조원 10명”(총 22명임, 필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중에 돌아간 이는 “겨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있는 ‘戈田三太郎’에 대한 기록을 『진중일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

15) 『진중일지』, 권2, 90쪽. 1907년 9월 12일자.

16) 『진중일지』, 권2, 92~93쪽. 1907년 9월 13일자.

4. 松野대위는 부하 전원(1소대)을 거느리고 13일 오전 6시 30분 당지 북단을 출발하여 대토, 석계동을 지나 禁舞洞방향으로 전진하여 적성 방향의 적을 소탕할 것.
5. 본대는 제7중대의 잔여부대인 水町중대(1소대 결), 기관총대, 포병 소대의 순서로 6시 40분 출발하여 전위의 진로로 전진할 것.
6. 수송대는 오전 8시 당지를 출발하여 본대의 진로로 전진할 것.
7. 나는 본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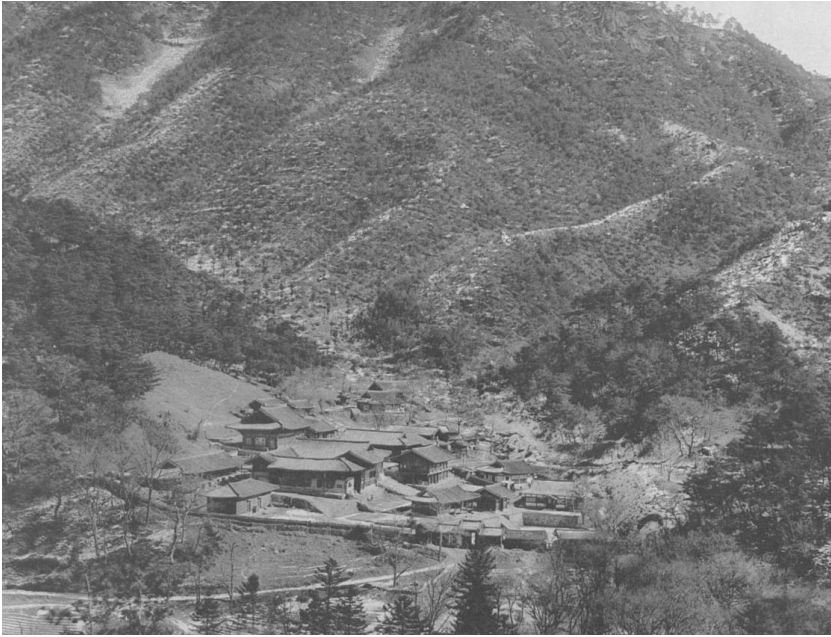
제3중대장 菊池대좌

이에 따르면, 菊池 대좌는 9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제2대대장 不破소좌에게 ‘前衛’를 맡아 진남관을 거쳐 문경으로 향하도록 했다. 제5중대장 松野대위는 같은 시간에 적성 방면으로 향하게 했다. 본대는 6시 40분에 전위를 따라가도록 했다.

부대는 오후 4시에 진남관을 지나 문경에 도착하였다. 진남관에서 문경에 이르는 전선은 모두 잘려 있었고, 전주도 넘어져 있었다. 또한 일본인 집과 일본인과 관련 있는 한인의 가옥은 모두 파괴되고 소각되어 있었다. 일본군이 지방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일전인 9월 2일 40여명의 의병이 문경의 일본인 집을 소각하고, 7일전인 9월 5일 500여명의 의병이 사방에서 군집하여 3일간 숙영한 후 동북방으로 갔다고 하였다. 일본군은 의병이 한 부대는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大乘寺에, 한 부대는 金龍寺 부근으로 퇴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菊池대좌는 본대로 대승사를, 不破소좌에게는 금룡사를 공격하도록 하고 연대장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한문과 한글로 된 고시문을 게시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폭도의 증좌가 있어 당연히 모든 마을을 불태워버려야 하지만, 금후 일본군이 설치한 전신선을 절단하는 자가 있으면 연도의 춘락을 모두 소각할 터이니 각 마을은 협력하기를 바란다.

명치 40년 9월 13일 대일본국연대장 菊池主殿¹⁷⁾



(『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真帖』, 1929년)

[그림 1] 문경 금룡사 전경(1929년)

菊池의 명령을 받은 不破소좌는 대승사에 갔으나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은 이미 12일 그곳에서 1박하고 적성 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9월 14일 일본군 제5중대장 松野 대위 부대가 대승사 부근을 정찰하던 중 이강년의병대 100여명과 적성에서 전투가 있었다. 14일 오후 1시경 대승사 동방 1,000미터 되는 1030고지에서 의병대가 적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진격하여 오후 5시경 적성시장 부근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약 500명의 의병대를 공격한 것이다.¹⁸⁾ 일본군 보고서에 이 전투에서 의병 25명과 주민 3명을 사살했으며, 화승총 30정과 군도1정, 振旗 1, 탄약 약간을 노획했

17) 『진중일지』, 권2, 97쪽. 1907년 9월 14일.

18) 『진중일지』, 권2 104쪽. 1907년 9월 15일.

다 한다. 또한 사체 중에 ‘적의 수괴’ 이강년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적성 마을의 민가 전체를 전투 후에 소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의 피해는 실탄 382발을 소비한 것 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⁹⁾ 이강년의병은 적성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적성전투에 대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8일 정묘일(양력, 9월 15일)조에 의하면, “정묘일에 후군장 申泰元이 적성에서 싸우다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적성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이강년은 이만원에게 지시하여 적성으로 가서 36명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게 하였다.²⁰⁾

菊池는 9월 15일 다음과 같은 의병들에 주는 글인 ‘與義軍書’를 발표하여 마을마다 게시하였다.

7월 1일 京城禁衛隊 해산 이래 大韓國義勇之士가 京城 江華 忠州 방면과 기타 각지에서 봉기하여 일본인을 원수로 하는 바가 수십 일이 지났다. 만민이 도탄에 고통 받고 日韓 양국민이 모두 산업을 폐기한 것이 셀 수 없으니 실로 양국민의 불행이다. 깊이 생각하니 義軍의 논리 또한 동정할 바가 없는 것이 아니나 비록 그러하나 大勢는 이미 정해졌으니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없다(고딕, 필자). 단지 그대들은 인명을 해치고 재물을 파괴하는데 그치니 어찌 義軍 중에 한 사람도 이 理致를 아는 이가 없는가. 오늘날의 大勢는 도저히 만회하여 의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義軍은 오늘날 모름지기 뜻을 바꿔 義軍을 解散하고 각자 産業에 복귀한 즉 오히려 大韓國의 백년대계를 위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후략)

명치 40년 9월 15일

문경에서 일본군지휘관 육군 菊池主殿²¹⁾

19) 『진중일지』, 권2, 103~104쪽. 1907년 9월 15일.

20)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정묘일조(『독립운동사자료집』 1, 234쪽).

21) 『진중일지』, 권2, 98~99쪽.

의병들에게 의병을 일으킨 뜻은 동정하나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면서 이른바 ‘大勢論’을 펴면서 의병 해산을 종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菊池는 적성전투 후에 千島대위에게 1개 소대를 주어 대승사에 보내 의병이 사용하던 정미를 압수하여 오게 하였다.²²⁾ 아울러 千島대위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대승사 승려에게 주고 오게 하였다.

大乘寺

이 사찰은 융희 초년의 난에 적도의 소굴이 되어 마땅히 소각하여야 하나 너희들이 이 사찰이 한국 명찰이고 잠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가련함이 있어 경계하는 뜻으로 잠시 특별히 존치한다.

명치40년 9월

안동문경방면 대일본군지휘관 육군보병대좌 菊池主殿²³⁾



[그림 2] 대승사 전경

22) 대승사에서 압수한 양곡은 정미32석, 유미 4말5되, 소금 2말, 胡麻 1말에 달한다고 보고 하였다(『진중일지』, 2권 110쪽).

23) 『진중일지』, 권2 107~108쪽. 대승사는 문경 산북면의 사불산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진평왕대 창건되었다. 1922년과 1956년에 화재가 있어 명부전과 극락전만 남고 불타 1966년에 다시 건축했다 한다.

菊池는 金龍寺에도 精米가 저장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9월 19일 아침 西原중위에게 1개 소대를 주어 보내면서 대승사 승려에게 준 글을 전달하게 하였다.²⁴⁾ 다음날인 9월 20일 서원중위는 금룡사에서 양곡을 운반하여 귀대 했다. 몰수 물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미 134표(34석 9두), 소맥 4표(1석2두), 맥분 1표2상(약2석), 대두 2표(약3두5되), 소금 17표(약7석), 소두 1표(5되), 곤포 해태 기타 부식물 1표, 짚신 130족, 기념품 창7본 기타 잡품 약간.²⁵⁾

9월 17일 아침 松野중대의 전투보고를 수령했는데 이에 의하면, 의병 2명을 체포하여 심문 도중에 도주를 기도함에 사살했다. 이들 의병은 문경군 신동면에 거주하는 27세의 金成達과 化安郡 달미면 광동리에 거주하는 26세의 金用出로 이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일본군의 상황을 의병에 보고하였다고 한다.²⁶⁾ 9월 18일에도 9월 6일 체포한 李康裕(이강년의 숙부)와 趙炳淳이 탈출을 기도했다고 사살하고 있다. 이강유는 이강년에게 일본군의 행동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병에게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 조병순 역시 의병과 연락을 취하며 대승사에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²⁷⁾

24) 『진중일지』 권2, 112쪽.

25) 『진중일지』 권2, 119쪽.

26) 『진중일지』 권2, 108쪽.

27) 『진중일지』 권2, 111쪽.

Ⅲ. 일본군 수비대의 재배치와 이강년 체포

1. 일본군수비대의 재배치

1907년 9월 21일, 여단장은 제14연대에 다시 명령을 내려 봉화와 죽령방면과 경북 해안지대에 병력을 다음과 같이 재배치하였다.²⁸⁾

제1중대 : 봉화와 경북 해안지대

영일 : 제10중대의 1소대

울산 : 제10중대(1소대 결)

제2중대 : 죽령 부근

부산 : 제3대대 본부

영천 : 제11중대(1소대 결)

청송 : 제11중대의 1소대

밀양 : 제12중대(1소대 결)

삼랑진 : 제12중대의 1소대

이어서 연대본부와 기병·포병소대·공병은 대구에, 5중대는 영동에, 2대대본부와 7중대(1소대 결)는 광주에, 남원에는 7중대의 1소대를 배치하였다.

이강년은 9월 19일 500여명을 인솔하고 영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⁹⁾ 이를 추격한 西岡대위가 인솔하는 제11중대의 1소대(하사 이하 25명)는 9월 25일 영춘에서 이강년부대와 일전을 겨루었다. 서강 중대는 순흥에서 순흥수비대와 합류하여 19일 오후 6시경에 영춘에서 의병 300여명과 충돌하였으며, 1시간여 교전하여 의병대를 궤란에 빠뜨렸다고 한다. 이 의병에는 이강년이 지휘하는 부대로 안동진위대 부장였던 朴南圭가 지휘하는 韓兵도가담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17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38명을 냈으며 전

28) 『진중일지』 권2, 123~124쪽. 1907년 9월 21일자.

29) 『진중일지』 권2, 140쪽. 1907년 9월 23일자.

리폼으로 연탄 약 5천발과 화승총 15정, 쌀 약5석, 잡품 몇 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⁰⁾

일본군 수비대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영천수비대 제4중대의 熊澤소대는 1907년 11월 3일 오전 3시 죽령 北麓에 있는 이강년부대를 야습하였는데, 의병은 해산군인 140여명을 포함하여 약 4백여 명이었는데, 의병 8명을 죽이고 4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의병대를 단양 쪽으로 격퇴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¹⁾ 이강년의병의 중군장 鄭濱이 대구경무서에서 파견한 이 경시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빈은 10월 31일 청풍군의 교동에서 체포되었는데, 1907년 8월초 제천의 흑석동에서 이강년과 만나 의병을 일으키고 중군장을 맡았다 한다. 또한 그는 120여명의 의병을 지휘하였는데, 그중에 원주진위대 해산병이 20명 있었다 한다.³²⁾ 안동수비대에서도 11월 3일부터 이강년의병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인을 한인 복을 입혀 정보를 탐지하고 11월 7일 단양의 괴평리 일대 산악지대에서 교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은 흑색 옷을 입은 자(해산군인, 필자) 약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은 더 되어 보이는데 전투결과 의병 4,5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으며 일본군의 피해는 없다고 한다.³³⁾ 『진중일지』에 이 전투에서 체포된 의병 金在漑의 심문내용이 있어 참고로 소개하기로 한다.

음력 9월 28일(8일전) 제천 폭도의 척후에 체포되어 별진에 편입되었다. 이 부대의 지휘자는 성은 金이나 이름은 모른다. 당일 이 부대의 인원은 34명이었다. 그날 밤 제천군 북면 某洞에서 숙영했다. 이 동에서 白木綿과 집신 20개를 징발하여 부하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음 날 점심

30) 『진중일지』 권2, 152쪽(9월 28일자), 172~173쪽(1907년 10월 1일자).

31) 『진중일지』 권3, 148쪽. 1907년 11월 10일자.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일자(을묘일)에 의하면, 의병은 죽령전투에서 일본군 20명을 죽였다고 적혀있다(『독립운동사 자료집』 1, 244쪽).

32) 『진중일지』 권3, 145~146쪽. 1907년 11월 9일자. ‘운강장임록’에는 정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33) 『진중일지』 권3, 169~173쪽. 1907년. 1907년 11월 14일자.

후 이 동를 떠나 10리되는 어떤 촌락에 숙영하고, 다음 날 28일 조식 후 20리떨어진 어떤 촌락에 가서 중식을 먹었다. 이곳에서 백목면 2필과 짚신30개를 징발하여 부하들에게 분배하였다. 또 30리를 가서 단양 예천 양군의 경계인 傍谷洞에서 숙영하고 그곳에서 집신 30개를 징발하였다. 29일 단양군 槐坪으로 갔다. 그때 무리가 70여명이었는데 괴평에는 대부대가 있었는데 대략 400여명이었다. 또 단양의 본진에서 70여명이 괴평에 왔다고 들었다. 28일 저녁 후에 진을 괴평으로 옮겼다. 단양 남면의 면장에게 동북 20벌을 납부하게 하여 분배하였다. 大陣은 지난 날 일본병과 교전했는데, 그때 일병 선두에는 일진회원이 있었다(아마 31일 우리 풍기수비대와 교전한 것일 듯). 그때 일진회원과 일본병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데 그 수는 알 수 없다. 대진은 한병이 섞여 있었는데 우리 진중(별진)에는 한병 5명이 탄환과 총 10정이 있었다. 일병 100여명이 괴평 부근에서 급습해 왔다는 것을 듣고 당황해서 패주할 때 체포되었다. 우리 진중에는 10혈포 1자루, 5연발 1정이 있고, 대진의 대장은 李雲康(李康年 字 雲康), 도선봉장의 성은 河이고 이름은 모른다. 좌선봉장의 성은 白이고 이름은 모른다.³⁴⁾

이에 따르면, 김재희는 제천에서 이강년의병의 척후대(지휘자의 성이 金)에 포섭되어 1907년 11월 3일(음, 9월 28일) 의병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일후인 11월 5일 단양 괴평에 있는 이강년의병의 본진에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패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한다. 그는 의병장이 이강년으로 자를 운강이라고 함을 밝히고 도선봉의 성이 하씨이고 좌선봉이 백씨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³⁵⁾ 또한 일본군의 선두에 일진회원이 있다고 하여 일진회원이 일본군의 앞잡이로 의병 진압에 가담한 것을 알게 한다.

이강년부대는 申堧石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07년 11월 11일 오전 7시에 이강년부대 약200명과 신돌석의병 약 300명이 영춘 방면에

34) 『진중일지』 권3, 172~173쪽. 1907년 11월 14일자.

35) 도선봉은 河漢瑞, 좌선봉은 白南奎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79

서 순흥으로 와서 순흥분파소와 군아의 건물, 민가 약 180호를 소각하고, 순사의 검 2벌과 외투 2장을 탈취하여 영춘으로 돌아갔다.³⁶⁾

菊池 대좌는 영천수비대에 지시하여 熊澤소위에게 23명을 인솔하여 12일 오후 1시에 영천을 출발하여 이강년과 신돌석의병대를 영춘 방향으로 추격하게 하였다.³⁷⁾ 웅택소대는 11월 13일 오후 10시에 순흥 북방 30리의 덕산을 떠나 이강년의병을 추격하여 고치령에서 접전하여 11시 30분경 고치령을 점령하였다. 의병대는 이 전투후에 영월군 谷口 부근으로, 일부는 爲風(義風; 필자) 부근에 집결하였다 한다. 그리고 西壁里에는 4,5백명의 의병이 있음에 서벽리쪽으로 정찰대를 보냈다.³⁸⁾

菊池 연대장은 11월 14일 이강년의병대에 대한 진압명령을 내리고 제1대 대장 赤司安一郎소좌를 지휘자로 한 다음의 진압부대를 편성하는 작전명령을 내렸다.

- ① 赤司소좌는 제3중대(1소대 결)와 제12중대의 1소대, 기병 반개소대 및 기관총 2문을 거느리고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고 근방의 폭도를 토벌할 것.
- ② 赤司소좌는 풍기 부근에 도착하면 征矢野중대 및 보병제47연대 후비중대를 모두 지휘할 것.³⁹⁾

赤司소좌는 명령에 따라 이강년의병대를 추적하였다. 11월 18일 제4중대 河村소대가 鳥道嶺을 지나 黃池里에서 金成(生)산의병과 교전하여 김성산을 체포하였는데, 김성산의 자백에 의하면, 邊學基의병 200여명이 이강년의병과 연합하여 단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⁴⁰⁾ 그러나 赤司소좌는 1907년 11

36) 『진중일지』 권3, 160쪽. 1907년 11월 13일자. 3권 184쪽. 1907년 11월 16일자.

37) 『진중일지』 권3, 188쪽. 1907년 11월 16일자.

38) 『진중일지』 권4, 304쪽. 1907년 11월 18일자.

39) 『진중일지』 권3, 163쪽. 1907년 11월 14일자.

40) 『진중일지』 권4, 29쪽. 1907년 11월 26일자. 김성산은 그해 12월 4일 도주를 기도한다고 해서 '격살'되었다(권4, 61쪽. 1907년 12월 4일자).

월 24일 이강년이 영춘 남방 약 10리에 있는 城谷洞에 약 5백여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⁴¹⁾ 11월 26일에는 이강년의병 5백여 명이 영천의 水發洞에서 영춘 쪽으로 들어오는 제3중대(鳥飼대위)를 공격하였다. 어침 8시부터 무려 5시간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의병은 60명이나 희생되었다. 이 영춘전투에서 이강년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6일자(기묘일)에 의하면, 이강년이 “손수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다가 저항하지 못하여 진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날의 전투상황을 상세히 적고 있다.

해뜰 무렵에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榆峙에서 싸웠는데, 바라다보니 機峙에 여너기와 불길기 하늘에 닿았고, 또 수하리에는 적진이 비어 있으므로 적이 우리 편에서 복병한 것을 알고 어두운 밤에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얼마후에 희 옷 입은 적 셋이 기치로 향해 오고, 적 둘은 시냇가에 었디었고, 또 10여명의 적이 대치하여 왔다. 공이 시험삼아 공격하게 하였으나 적이 응전하지 않더니, 이윽고 적 수백이 道昌谷 상봉으로부터 총을 쏘는데 우리 진은 험한 곳을 상실하여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만 진이 무너졌다. 공의 맏아들 承率가 공을 보호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물러나서 馬岱로 퇴각하여 머물렀는데, 따라온 군사가 겨우 수십 명이였다. 이튿날 檜谷에 당도하니 주인 李潤淳이 군사들을 대접하였다.⁴²⁾

이강년부대는 일본군 제14연대의 제3중대장 鳥飼대위가 인솔한 부대와와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만 것이다. 鳥飼대위는 일본군 10여명을 보내 이강년의 병의 복병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본진을 산위로 보내 위에서 아래를 향해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의진을 꺾멸시킨 것이다. 일본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 든 작전상의 실패 결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경에는 영춘에서 서남쪽으로

41) 『진중일지』 권4, 20쪽. 1907년 11월 24일자.

42)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26일자(기묘일) 『독립운동사자료집』 1, 250쪽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81

30리 떨어진 寶鉢 부근에서 의병 약 150명과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도 의병은 약 30여명이 희생되었다. 제3중대는 27일에도 영춘에서 영월 간의 무명천, 대곡지에서도 격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의병 30명이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실탄 1,500발을 소비하였을 뿐이라고 한다.⁴³⁾

赤司소좌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추격을 계속하여 12월 2일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이 11월 29일 이후 영월동방에서 영월 영춘의 서남인 청풍동방 지역에서 소백산 북록에 걸쳐 이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양 서북방 약 40리의 梅團洞 부근에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에 따라 赤司소좌는 12월 2일 제3중대 병력을 정선 강의 북방에서 매단동 부근의 의병을 엄습하게 하고, 제4중대는 의병의 후방인 영천에서 소백산 북록에 걸쳐 배치하고 그 일부로 죽령을 막도록 하였다.⁴⁴⁾ 이후 12월 5일자 赤司소좌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은 삼척방향을 향해 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⁵⁾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계미일(1907년 11월 30일; 필자)에 적이 크게 쳐 들어오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중이 무너졌다”라고 일본군의 공세에 속수무책 패한 사실을 적고 있다.⁴⁶⁾

한편 1907년 12월 16일 주차군사령관 長谷川好道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병 제14연대 제1대대본부와 제3중대, 제4중대 및 보병 제47연대의 제1중대에게 ‘경상북도 북부의 賊魁 李康季 申奭石 邊學基 등’의 의병 ‘토벌’에 ‘艱苦’하게 종사한 공적을 들어 부대표창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⁷⁾ 赤司소좌는 12월 27일 이강년을 비롯하여 이인영, 조동교, 변학기 등이 정선, 평창이 북의 골짜기에서 일부는 영월 서방 및 황성 부근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민가 외에 숨을 곳이 없으므로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고하고 있다.⁴⁸⁾ 또한 赤司소좌는 제천수비대로부터 이강년부대가 영춘 부근에 있는

43) 『진중일지』 권4, 36~39쪽. 1907년 11월 29일자.

44) 『진중일지』 권4, 52쪽. 1907년 12월 2일자.

45) 『진중일지』 권4, 66쪽. 1907년 12월 5일자.

46)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11월 30일자(계미일)(『독립운동사자료집』 1, 251쪽.

47) 『진중일지』 권4, 106쪽. 1907년 12월 17일, ‘명령’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단양수비대와 함께 공격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赤司대대장은 12월 30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 이강년의병대 진압에 2개 중대 병력을 투입하였다.⁴⁹⁾

명령(1907년 12월 30일, 영천에서)

1. 정선 북방 門峙山脈과 白福山脈의 각 谷地(골짜기)에는 이인영과 이강년 등이 거느리는 폭도가 潛匿하고 있는 것 같다.
2. 대대는 1월 3일부터 이 폭도를 토벌하고자 한다.
3. 제3중대는 대략 계획표에 표시했듯이 행동하여 백복산맥의 서쪽 각 谷地의 적도를 토벌하고 점차 강릉 방면으로 압박하여 진멸을 꾀할 것.
4. 제4중대 및 그 일부는 계획표에 보이듯이 행동하되 제3중대 방면의 적도를 북방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민활하게 문치산맥과 大陽山의 적도를 剿討하고, 제3중대와 협력하여 해안에 압박하여 진멸을 꾀할 것.
5. 삼척, 강릉수비대로 폭도 동북방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원주수비대로부터 일부를 횡성부근으로 파견하여 폭도의 서북방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대책을 세울 것.
6. 기병소대는 후방 연락을 위해 영월, 충주, 조치원간에 遞騎를 배치할 것.
7. 대대본부는 5일부터 律洞(영월 서방 약 10리)에 위치한다.

대대장 赤司 보병소좌

이어서 赤司소좌는 다음과 같이 8일간의 의병진압 일정표를 발표하였다.⁵⁰⁾

48) 『진중일지』 권4, 149쪽. 1907년 12월 2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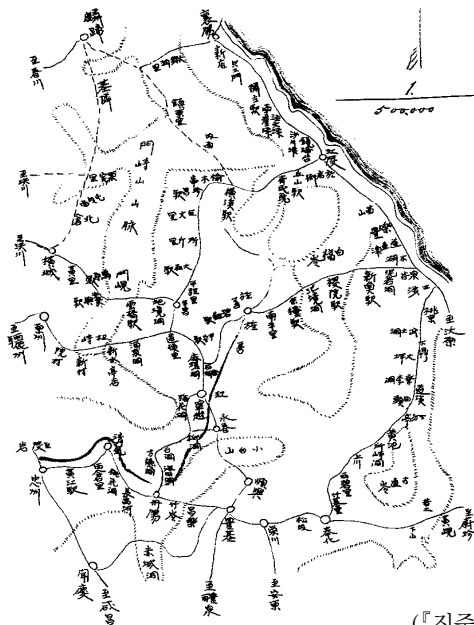
49) 『진중일지』 권4, 175~177쪽. 1908년 1월 4일자, ‘명령’.

50) 상동.

의병탄압계획 (약도 참조)

	제3중대	제4중대(1소대결)	제4중대의 1소대
제1일	순흥을 거쳐 召川시장	단양 부근	단양 부근
제2일	영춘 부근	율동 부근	청풍 부근 (송악산맥중 폭도초토)
제3일	영월 부근	영월서방 부근	新水亭 부근
제4일	영월북방 약40리 정선강의 좌안 골짜기의 폭도토벌	麻瑳洞 부근	雲梧洞 부근
제5일	정선 부근	대화역 부근	대화역 부근
제6일	상원사 부근	巨文里 부근	거문리서북방 약70리 문치산맥중
제7일	횡계역의 동남방 골짜기	榆木亭 부근	鎭東里 부근
제8일	齊民院 부근	內面 부근	楸洞里 부근

[그림 3] 의병탄압계획 약도



(『진중일지』 권4, 177쪽)

위 의병 진압 계획표는 190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8일간의 부대별 작전계획표이다. 그러나 赤司 소좌의 계획대로 이강년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진중일지』 1월초의 기록에서 이강년부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이 이를 말해 준다. 이강년에 대한 기록은 1월 11일자에 처음 나온다. 제3소대 河村소대의 보고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강년, 정해창 및 서모 등의 적도가 서로 모인 300여명의 적도는 1주일 전 수청동(울동남방 약40리)과 板六(울동서남방 약 30리)에서 식사를 하고 沙其內로 들어갔다. 그후의 적정을 탐지할 수 없다. 또 원주방향으로 보낸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 방면에는 현재 적도가 없고 7일전 覺林 부근에서 일병과 충돌하고 적도는 上安興을 거쳐 祭谷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한다. 下安興 방향에 간간 밀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의 적도는 아무래도 강릉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다.⁵¹⁾

위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 부대는 일본군의 추격을 강릉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다. 그러나 『윤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이강년은 1908년 1월 3일(음, 1907년 12월 30일)에는 흥천의 여창, 掛石里 부근에 있었다. 1월 4일에는 인제강을 건너 화천의 看尺里로 이진하였으며, 1월 6일에는 일본군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강년과 화남 박장호가 오른쪽 불기에 탄환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⁵²⁾

일본군은 의병 활동이 불리한 겨울철을 의병 진압의 호기라고 판단하고 진압작전을 계속하였다. 1월 19일에는 흥해수비대가 흥해의 신광면 古市場에서 의병대와 전투를 벌였다. 의병대는 李中軍이 거느리는 부대로 이 전투에서 의병은 부장인 鄭淵楫 등 13명이 전사하고 체포된 의병 중에 李萬石 등 2명은 도주를 기도하였다 하여 사살되었다.⁵³⁾ 흥해수비대에서는 3월 25일에

51) 『진중일지』 권5, 8쪽. 1908년 1월 11일자.

52) 『윤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1, 260~262쪽).

도 최성집이 인솔하는 山南義兵과 흥해의 덕산령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중군장 이모와 참모장 崔根澤 이하 12명을 사살했고 자신들은 피해가 없으며 실탄 272발을 소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⁴⁾ 일제는 의병 진압을 위해 수비대 만이 아니라 헌병대까지 투입하였다. 대구헌병분대에서는 4월 6일 경북 북부지역의 의병 진압을 위해 의성, 영해, 영양, 영덕, 영일 등 경북 북부지역에 헌병분견소를 신설하여 의병 탄압을 강화하였다.⁵⁵⁾ 이들 헌병분소는 각 지역에 배치된 수비대와 함께 의병부대를 진압하였다.

2. 이강년 체포

일본군 제47연대장 菊池는 5월 28일 대구의 연대본부에서 연대병력에게 훈시를 내려 47연대가 의병 진압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지 1년이 지나 ‘苦心奔走’하였지만, 의병의 상황은 교묘히 출몰하여 아군의 예봉을 피함에 ‘토벌’하면 뒤이어 일어났다면서 지금은 우리 수비구역이 동남부 거의 전역에 걸쳐있고 또 증원군 파병을 주청하였으니 일층 분발하여 하루라도 빨리 진정의 공을 다할 것을 바란다고 지시하였다.⁵⁶⁾ 또한 菊池 연대장은 의병 검거의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지시하면서 별도로 17개항에 달하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중 8항에서

수괴 검거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赤司토벌대의 경북, 강원 양도에서의 대토벌은 그 효력이 컸지만, 수괴의 토멸을 실패함에 따라서 근래 李康季 邊學基가 재거를 하기에 이르렀다.⁵⁷⁾

53) 『진중일지』 권5, 57~58쪽. 1908년 1월 26일자.

54) 『진중일지』 권7, 40쪽. 1908년 3월 29일자.

55) 『진중일지』 권7, 60쪽. 1908년 4월 6일자.

56) 『진중일지』 권8, 23쪽. 1908년 5월 28일자.

57) 『진중일지』 권8, 31~32쪽. 1908년 5월 28일자.

라고 의병 진압에 큰 효과가 있었지만, 의병장 체포에 실패하여 ‘이강년과 변학기’가 지휘하는 의병이 재거하였다면서 의병장 체포를 특히 강조하여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의병장 이강년은 1908년 7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 진중일지에서는 이강년의병의 체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후6시작. 보병제47연대 통보(7월 4일 태전에서)
보병제23연대의 통보에 의하면, 적괴 이강년은 7월 2일 제천수비대에
의해 생금되었다 한다.⁵⁸⁾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장이 7월 2일 체포되었으며,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가 체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 제47연대장 菊池는 특별 훈시와 주의사항을 내리면서 이강년 체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진중일지에는 이강년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이강년의 체포 소식을 제천경찰분서장, 충주경찰분서장 등이 경무국장 松井茂에게 지급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제천경찰분서장 戸田慶 경부가 올린 7월 3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矢野 순사가 吉田 현병, 判上 상등병외 1명의 병졸과 함께 의병 20여명과 전투를 했으며, 전사한 의병 중에 한명이 서류와 ‘印判箱’을 휴대한 채 죽어있는 것을 보고 의병장의 ‘從者’라고 생각되었다 한다. 또 산속으로 도주한 부상자의 혈흔이 남아 있어 계속 추적하자 전투 현장에서 약 12丁 떨어진 錦繡山의 서쪽 산중에 한명의 의병이 숨어 있어 곧바로 공격하였다 한다. 의병은 족부에 부상을 입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 거동을 살피니 얼굴 왼쪽에 칼자국이 있고, 가슴에 쌍안경을 가지고 있어 ‘巨魁 李康季’이 아닌가 생각되어 바로 포박하여 호송하였다 한다.⁵⁹⁾

58) 『진중일지』 권8, 95쪽. 1908년 7월 6일자.

이강년의 체포의 일에 관하여 『운강선생장의일록』에서는

6월 4일(양력 7월 2일, 필자) 청풍 작성에 이르러 적과 싸웠는데 공이 탄환을 맞아 적에게 붙잡혔다. 이때 적이 공의 뒤를 따라 영월에서 청풍으로 와서 나룻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춘의 산길을 경유하여 능강동으로 향하려 하다가 소금 장사의 배를 만나 겨우 건너서 작성에 주둔하였다. 마침 장마비가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드리닥치니 공이 힘써 반나절 동안 싸우다가 적의 탄환이 왼쪽 복사뼈에 맞아서 적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⁶⁰⁾

라고 이강년이 작성전투에서 왼쪽 복사뼈 부상으로 체포되었다고 알려준다.

한편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도 있다. 이 보고서는 1908년 7월 4일 충주경찰분서 高津嘉志馬 경부가 제천수비대장이 이강년을 취조할 때 배석한 결과를 경무국장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은 오른쪽 발 뒤꿈치(右足踵部)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강년은 수비대장의 취조 과정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國家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38살부터 의병으로서 國家를 위하여 행동을 하여 지금 51살이니 13년간 거의 시종 일관 國家를 위해 身力을 다했다. 지금 불행하게 나포된 몸이 되어 이에 뒷일의 희망이 끊어졌다. 어떤 심문이 있을 것이다. 어찌 숨길 것 것이 있겠냐.⁶¹⁾

이강년은 38살였던 1895년부터 51살이 된 지금까지 13년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강년의 위의 말에 수비대장은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大勢를 모르는 잘못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

59) 『폭도에 관한 편책』 1907년 7월 3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제천경찰분서장의 보고」.

60) 『운강선생장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 281쪽).

61) 『폭도에 관한 편책』 1907년 7월 4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

강년은 '閔妃'의 죽음('橫死')에서부터 '皇帝讓位'등의 일을 자세히(諄諄) 말하고 이 때문에 의거를 일으켰음을 분명히 하였다.⁶²⁾

IV. 맺음말

일제는 1904년 3월 서울에 한국주차군수비대를 설치하여 조선의 국권을 유린하였다. 러일전쟁이 종료된 후인 1905년 10월에는 보병제13사단과 제15사단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고 을사조약을 강제하였다. 일제는 1907년 3월에 제15사단을 철수시키고 그 대신에 그해 7월에 보병제12사단의 제14연대와 제47연대로 1개 여단을 편성하여 한국에 파견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진중일지』는 바로 보병제12사단에 소속된 제14연대의 진중일지로 1907년 7월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부대 복귀까지의 기록이다. 『진중일지』는 충청, 영, 호남지역 의병을 탄압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병제14연대의 연대장 菊池主殿 대좌는 1908년 8월부터 경북지역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좌우토벌대'를 6개중대로 편성하여 직접 제3중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에는 이강년의병이 강력한 의병항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제천에서 의병을 봉기하고 제천, 청풍, 문경일대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였다.

이강년의병은 문경일대의 전선을 절단하고 전신주를 뽑음으로써 일제의 통신을 두절시켰다. 또한 申堧石·邊學基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순흥군아와 분파소를 공격하였으며, 영천의 수발동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제14연대의 제1대대장 赤司小좌가 이끄는 제1대대는 적성전투에서 의병을 대패시키고,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와 금룡사를 공격하는 등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을 통하여 이강년의진의 근거지

62) 『폭도에 관한 편책』 1907년 7월 4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

를 점령해갔다. 赤司소좌는 1908년 1월초에는 수비대를 3개조로 재편성하여 순흥과 단양, 청풍을 거쳐 강원도 산간지역인 영월, 정선, 횡성 일대까지 집중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등 이강년부대 탄압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강년은 일본군의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에도 1908년 7월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2일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와와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고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수비대장의 심문에 을미년(1895년)부터 13년간 시종일관 국가를 위해 신력을 다했으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음을 크게 아쉬워했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해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에 항거하였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운강선생장의일록』

『폭도에 관한 편책』(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14집, 1970.

김상기 편역,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1.

정제우, 『운강 이강년의병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구완희, 「이강년 관련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선인, 2005.